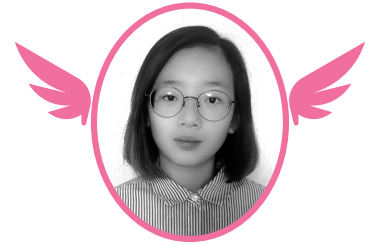




‘강’ 따라 ‘산’ 따라, 충주호



전하경 · 충주 용산초등학교 5학년

“하경아, 조금만 더 힘내!”

“아빠, 나 다리에 느낌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 나 정말 다신 안 올 거야!”

엄청난 더위로 고생했던 여름이 지나고, 아빠와 함께 다시 자전거를 타고 충주댐으로 향했다. 날씨가 좋은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무술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여 자전거 길을 따라 충주댐을 다녀온다.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면 다리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숨이 차고 힘들기는 하지만 자전거 길을 따라 펼쳐지는 남한강과 산을 보면 마음이 뽕 뚫리는 느낌이 든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 한적한 자전거 도로에 들어서면 아빠의 어릴 적 이야기가 또다시 시작된다. 아빠 친구들과 자전거로 충주댐에 왔던 일, 고등학교 소풍으로 왔던 이야기, 심지어는 엄마와 데이트를 했던 이야기까지.

이제는 다 외워서 내 일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늘 처음 하는 이야기처럼 하신다. 아빠 뿐만 아니라 가끔씩 할머니를 모시고 바람을 쐬러 나오면 꼭 지나가는 길이 있다. 바로 마지막 재를 넘고 충주호를 거쳐 동량면을 지나 탄금호를 돌아서 오는 길이다. 그럼 할머니께서는 창밖을 보시며 충주호 물의 높이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살펴보시고는, 댐이 생기면서 물속에 잠기고 만 할머니의 어릴 적 외갓집 이야기, 할아버지께서 물속의 보물이라며 수석을 주우러 다니시던 일들을 신이 나서 말씀하신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남한강과 푸른 산을 보며 스르륵 잠이 든다.

대전에서 태어난 나는 작년에 아빠의 고향인 충주로 오게 되었다. 전에도 몇 번 오긴 했지만, 이사 온 후 자주 충주호를 찾게 되었다. 처음엔 길으로 봐서는 흐르는 것인지 멈춰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강과, 우두커니 서서 불편하게 구불구불한 길을 만들어 멀미만 나게 했던 산들이 낯설었다. 왜 아빠와 할머니는 바람을 쐬러 가자고만 하면 충주호로 오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느린 속도로 오고 가면서 길옆으로 흐르는 남한강과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나서는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해 보니 봄이면 벚꽃으로, 여름이면 남한강과 계명산의 시원한 바람으로, 가을이면 울긋불긋 단풍으로, 겨울이면 새하얀 눈꽃으로 4계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충주호와 산들은 정말 충주의 자랑거리이다. 아빠께서는 충주호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전국에서도 빼어나기로 소문난 곳이라고 알려 주셨다.

더욱이 충주호와 아름다운 산이 있는 충주는 아빠와 할머니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고향이라 더 좋고 사랑스러운 것 같다.

그런데 지난번 며칠간 쏟아진 비로 인해 충주호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였다는 뉴스를

보았다. TV 화면을 통해 보이는 쓰레기 더미들은 섬처럼 보였다. 지금 버린 쓰레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나는 아주 가끔씩 창밖으로 던진 휴지 조각들과 몰래 길가에 두고 온 음료수 병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내가 몰래 버린 쓰레기들도 거기에 있는 것만 같아서 부끄러워졌다. 소중한 우리 땅, 아빠와 할머니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주말에도 아빠는 할머니를 모시고 충주호로 드라이브를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의 어릴 적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실 것 같다. 아마도 이곳 충주호는 충주에 살거나, 충주에서 태어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빠와 할머니에게처럼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역시 구불구불 흐르는 ‘강’을 따라, 또 끝없이 이어지는 ‘산’을 따라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아빠와 할머니 두 분의 추억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충주의 자랑인 충주호를 깨끗하게 보호하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